

전북

- 의산** 녹색바이오 관광벨트
- 남원** 소리문화벨트
- 순창** 디지털 워터홀
- 진안** 수변 마을 네트워크
- 무주** 익스트림 레포츠 타운

섬진강·금강 일대 新문화가 흐른다

道, 5개지역 특화사업 선정 2014년까지 개발

섬진강과 금강 주변에 있는 의산과 남원·순창 등 5개 지역이 문화명소로 개발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에 따라 금강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의산과 남원, 순창, 진안, 무주 등 5개 지역을 특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개발한다.

금강권역인 '의산 녹색바이오 관광벨트'는 의산

성당리와 충남 서천군 신성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된다.

'의산 바이오매스(Biomass)지구'에는 가축분뇨와 생활수소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이오체험관·미래에너지 공원·바이오광장 등을 갖춘 '바이오 테마파크'와 '에너지 체험마을'이 조성된다. 또 충남 서천 신성리 지구에는 생태전망대를 비롯해 노천 테

라스·갈대공방·갈대 문화광장·농촌체험센터 등이 꾸며진다.

섬진강 권역인 남원에는 '소리문화벨트'가 조성되며, 순창에는 '디지털 워터홀'이 각각 조성된다.

'남원 섬진강 소리문화벨트'는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금지면 일원에 대동놀이와 좌동농악을 즐기고 전수하는 공간(아카이브관)과 대동놀이 숲길·동편제 판소리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순창 섬진강 디지털 워터홀' 사업은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한가마을)에 위치한 폐 철교구조물 10개

를 이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380m 길이의 터널을 이용한 '디지털 워터홀'이 조성된다. '디지털 워터홀'은 벽면에 터치PDP를 설치, 물속생명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등 물을 테마로 한 디지털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 밖에도 금강 주변의 진안에는 수변 마을 네트워크와 한방·아토피·유기농 마을이 조성되고, 무주군 부남면 일대에는 오토 캠핑장, 익스트림 레포츠 시설, 산악자전거, 수변 트레킹 코스가 들어선다.

전북발전연구원 정병희 박사는 "강변 문화관광벨트는 수변 공간을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복합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선전자원이나 기존사업의 이름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부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완주 테크노밸리 30억 지원"

맹형규 행안부장관 도청 방문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지원을 약속했다.

맹 장관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완주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설명회에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도에서 요구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맹 장관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북처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없다"며 "일자리창출 대국민 토큰을 반드시 전북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장관은 총액인건비제의 신축 및 포괄적 운영에 대한 걱정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가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맹 장관은 새만금개발정 설치와 한식조리학교 설립 등에 대한 전북도의 걱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련부처에 전북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 유럽 투자유치 '올인'

정부, 독일·네덜란드·스웨덴과 적극 논의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총리실과 공동으로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은 오는 23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새만금 명예자문으로 위촉된 유종을 삼성전자 고문도 동행해 투자유치에 힘을 보탰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에서는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맹 장관은 새만금 명예자문으로 위촉된 유종을 삼성전자 고문도 동행해 투자유치에 힘을 보탰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에서는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Winergy·Vestas·Frasport 등 풍력관련 제조기업 10여개사와 리우드 테일 형식의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Merck 본사를 방문해 새만금지역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총리실)과 네덜란드(경제부)간 체결한 MOU 후 속조치로 지속가능 에너지, 아그로파크 등의 개발과 관련한 현지 기업 9개사 및 주네덜란드 한국대사 등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연금관리기관 APG와 네덜란드 최대 그린하우스(Greenhouse) 개발기업인 Wilk van der

Hoeven 본사도 방문해 1:1 투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웨덴에서는 바이오가스 기업 Scandinavian Biogas Fuels사와 태양에너지 기업 Climate Well사 등과의 1:1 상담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유럽권역 투자설명회는 제조기업 중심의 해외자본을 유치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중앙부처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의지로 여겨지고 있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에 더욱 힘을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소고춤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고창지역 학생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 47회 전북도민체전 개막식 식전 공연에서 '고창의 빛, 하나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이는 '소고 춤제'를 연습하고 있다. '소고 춤 제작' 공연에는 심원초등학교·고창중학교 학생과 고창생활체육회 등 308명이 참여 한다.

/전북취재본부=조종옥기자 jong@

멸종위기 '애기등' 선운산 서식

전북녹색연합 "도솔암 주변 군락지 발견"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에 멸종 위기 2급 식물인 '애기등'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녹색연합은 "최근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운산의 저지대에서 5부 능선까지 광범위한 면적에 '애기등'이 서식하고 있고, 선운사와 도솔암 등 사찰 주변의 계곡에 많이 분포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2008년 모악산에 이어 두 번째로 알려졌다.

콩과 낙엽 덩굴식물인 '애기등'은 진도와 해남, 거제도 등 한때 서남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사생지가 훼손되면서 2005년 환경부 멸종위기 암생식물로 지정됐다.

한편 선운산에서는 지난해에 딸랑이를 발견되기도 했다.



정벌레의 일종인 천연기념물 '비단벌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창우기자 jong@

先づおめでたす 전북취재본부
☎ 063)467-2833
전주 강철수 본부장(국장)
정을 박기선 국장 ☎ 531-5544
의산 류정원 부국장 ☎ 835-3133
고창 조종옥 부장 ☎ 561-5900
순창 이동희 부장 ☎ 653-0444
남원 백 선 차장 ☎ 633-9911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 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기구주택

● 광양군 신창동 대지 68평 3층 신축건물 3억 3천만

근린주택

● 남구 봉선동 대지 41평 3층 상가주택 1억 5천만

전원주택

● 광산구 삼거동 대지 245평 건물91평 전망좋음 투자적합 7천 3백만

신증동

● 대2.2건55평 2층전 10억원

신기동

● 대3.2건55평 2층전 10억원

전원주택

● 대1.2건60평 2층전 10억원

상가및사무실

● 나주시 이창동 대지107평 건물 140평 1층상가, 사무실 2층 다기구주택 1억 4천만

상가건물

● 동구 지산동 대지 143평 5층건물 7억 9천만

기타토지

● 화순읍 연양리 대지 177평 1억 5천만

▶ 이외 상담물건, 쌍방 대량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미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증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 사거리)

복돼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m² 58p)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 약 금 •

5613만원 납부

• 매 매 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급매

문 062 364-1613

의 010-9005-2223